

가계재정복지유형의 특성에 관한 연구

The Characteristics of Family Financial Well-being Types

제주산업정보대학 사회복지과
조 교 수 고 보 선
한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교 수 임 정 빈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heju College of Technology
Assistant Professor : Koh, Bo-Sun
College of Human Ecology, Hanyang University
Professor : Im, Jung-Bin

〈목 차〉

- | | |
|------------|---------------|
| I. 서 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선행연구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categorize the type of family financial well-being based on objective and subjective dimensions. And this study was intended to explore the relations not only those types and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but also those types and family subsystem; personal subsystem and managerial subsyste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The type of family financial well-being were categorized as 'Adequated type', 'Dissatisfying type', 'Satisfying type', and 'Unadequated type'.
2. The objective variables effect the family financial well-being rather than subjective variables.
3. The family cohesion, adjustment and communication pattern and intentional managing efforts increase the family financial well-being.

I. 서 론

가족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가족

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목표를 달성할 뿐 아니라 생활수준을 향상시켜서 궁극적으로는 가계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가계복지 수준은 객관적 측

면과 주관적 측면으로 따져 볼 수 있다. 전자는 일정기간의 화폐소득액, 소비지출액, 총자산, 순자산 그리고 총부채 등으로 측정되며 후자는 소득적정도인지, 자원적정도인지, 재정안정도인지, 생활격차감, 상대적박탈감,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 그리고 기대감 등으로 측정된다.

실제로 가족이 느끼는 복지수준은 위의 두 가지 차원의 복지수준이 조합된 것으로서 객관적 복지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도 가족의 생활만족도가 낮을 수 있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가정경영은 가족의 목표와 가치, 그리고 표준에 의해 이루어지며 각 가정의 만족수준은 그들의 생활표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가정의 복지수준은 객관적인 산정과 주관적인 평가로 설명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차원을 조합하여 가계복지유형을 4가지로 구분하고 각 유형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어떠한가, 그리고 가정경영체계의 2개의 하위체계 즉 인적체계와 관리체계의 특성은 가계재정복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려고 한다. 지금까지의 가계복지에 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의 연구가 각각 이루어져 있어서 가족의 실제적인 복지수준을 파악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가족의 복지감은 실제로 객관적 지표 즉 금전적 소득, 자산의 보유수준 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목표와 표준 설정에 참여하고, 계획된 내용을 얼마나 잘 수행해 가는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객관적 복지 수준이 높으면서 주관적 복지수준이 낮은 경우 어떠한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며 이러한 가정의 복지수준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변인을 찾아내려고 한다. 본 연구는 가정에 주어진 물질적, 금전적 자원과 가족의 응집성, 적응력 등의 인적체계와의 상호작용을 파악함으로써 가족의 복지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한다. 비록 객관적 복지수준이 낮은 가족이든 주관적 복지 수준이 낮은 가족이든간에 표준과 목표를 조정하는 것은 가정경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볼 때 이 연구를 통해서 전체적인 복지수준을 높일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고찰

1. 가계복지

많은 연구자들이 가정의 복지평가는 객관적인 측정과 주관적 인지를 동시에 파악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Andrew와 Withey(1976)는 복지측정을 하는데 있어서 삶의 질을 보는 시각을 절대적 복지수준, 상대적 복지수준, 그리고 변화와 관련된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시각은 역시 객관적 수준과 주관적 수준 그리고 사회적 조건을 동시에 파악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Williams(1986)은 재정복지와 생활의 질은 물질적인 측면과 비물질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시킨다고 강조하였다. 즉 객관적인 가계의 재정상태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동일한 재정상태일지라도 서로 다른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므로서 생활의 질 내지 재정복지상태는 객관적 측정과 주관적 측정방법을 동시에 실시하므로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다음에서 객관적 복지와 주관적 복지 개념을 선행연구를 기초로 정리한다.

1) 객관적 가계재정복지

가계의 객관적 가계재정복지는 한 가계의 경제적 지위를 절대적인 개념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가계의 소득, 자산수준, 기본 수요의 충족도, 소비수준 등 객관적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객관적 재정복지수준은 가계가 처해 있는 객관적인 재정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일정기간의 화폐소득액, 소비지출액, 총자산, 순자산, 총부채 등의 객관적인 경제지표를 사용하여 복지수준으로 측정한다(Strumpel, Ourtin, & Schwartz, 1976; Winter, Morris, & Rubio, 1988; Ackerman & Paolucci, 1983; 김민정, 1994; 고보선, 1996).

재정상태를 파악함에 있어 소득과 함께 순자산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소득만으로 가계의 재정복지수준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음이 지적됨에 따라 소득에 순자산을 포함하는 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즉 유량의 개념인 소득과 저량의 개념인 자산을 결합하

기 위하여 자산을 유량의 개념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Foster & Metzen, 1981; Wilhelm 등 1987; 노자경, 1991; 윤정혜, 1992; 이종혜, 1993; 김민정, 1994; 고보선, 1996, 1999).

2) 주관적 가계재정복지

가계재정복지에 대한 주관적 복지수준은 가족이나 가계관리자가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복지수준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소득적정인지, 자원적정인지, 재정적안정도인지, 생활격차감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 기대감 등으로 측정되고 있다(Hafstrom & Dunsing, 1973; Danes & Morris, 1989; Titus 등, 1989; Mugenda & Hira, 1990; 고보선 · 임정빈, 1992; 김순미, 1993; Sumarwan & Hira, 1993; 고보선 · 이영호, 1995; 고보선, 1996, 1999; 이상협, 1999).

Townsend(1974)는 절대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경제복지를 판단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빈곤이 오직 상대적 박탈이라는 상대적인 개념을 통해서만 정의될 수 있다고 하였다. Mammen, Helmick, Metzen(1986)은 객관적 척도보다 측정하기가 어렵고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주관적 척도는 개인의 복지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객관적 척도와 함께 주관적 척도를 병행하면 개인의 복지감을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계선자 · 한정화(1997)는 가족 응집성과 가족 적응력이 경제복지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임을 말하고 있어 가족의 내면적인 만족과 기대감이 경제적만족도 측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가계복지에 대한 주관적인 접근을 시도한 연구들은 자신의 경제상황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인 복지수준이 객관적인 조건의 변화에 비례하여 변하지 않으며, 개인의 선호를 일정하게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고 소득과 같은 객관적인 조건의 변화만을 다루는 접근방법에 한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특히 Campbell(1976)등은 개인마다 가치, 열망, 목표가 내재된 선호함수가 다르기 때문에 자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경제적 만족감이 그에 상응하여 상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생활수준향상과 소비유형이 복잡해지는데 따른 소비패턴의 복잡성은 지출에 기반

을 둔 척도의 한계점을 지적한다.

실제로 박순금 · 계선자(1994)의 보고에 의하면, 부부의 경제생활만족도는 가정의 경제환경에 대한 지각정도인 주관적 경제수준 평가가 사회인구학적 변인보다 영향력이 더 크다고 하면서, 각 가정의 경제복지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 주관적 경제수준 지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고보선 · 이영호(1995)의 연구에서도 재정상태만족도에 대하여 객관적 변인과 주관적 변인이 모두 직접 ·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계재정복지 연구에 있어서 두 요소를 모두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2. 가족체계의 구성요소 및 영향요인

가족은 하나의 체계로서 작용하며 가족체계는 2개의 하위체계, 즉 관리적 체계와 인적체계로 구성된다. 이 두 개의 하위체계는 역동성을 가지고 서로 상호작용한다. 그 각 하위체계와 그 관계를 살펴본다.

1) 인적체계의 요소

가족체계의 행동특성을 Deacon 과 Firebaugh(1988)는 가족체계의 역동성(intrasystem dynamics) 이라고 하였으며, 체계내 역동성 요소로 Olson(1983)은 순환모델에서 사용된 세 차원인 응집력, 적응력, 의사소통과 가족자원관리행동인 기능성을 포함시켰다. 즉, 가족구성원들은 개인 상호간에 의사소통을 하면서 응집력, 적응력, 기능성이 발달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가족은 전체가 각 부분의 단순 합보다 큰 체계로서의 실체가 된다고 하여 체계내 역동성 요소를 강조한다. 가족체계는 체계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달하며 이를 토대로 체계의 내 · 외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가족체계를 유지, 발전시킨다.

가족자원관리체계이론에서 인적체계와 관리적체계는 변환과정에서 상호작용을 한다. 인적체계 중 응집력은 가족원간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가족원간의 정서적인 유대, 가족외부환경과 하위체계간의 경계, 연합의 정도, 가족공동시간과 개인적인 시간의 허용정도, 가족의 공동친구와 개인의 사적 친구의 인정, 의사결정유형, 그리

고 가족전체활동과 개인적 활동의 보장정도 등을 포함된다. 적응력은 가족체계가 상황적, 발달적 요구에 대하여 권력구조, 역할관계 및 역할규칙을 변화시켜 대처하는 능력을 말하며, 이는 가족원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형태, 지도력 유형, 부모의 자녀훈육 형태, 가족원간의 타협능력, 역할확립 및 분담, 그리고 가족규칙의 명확성과 융통성 등이 포함된다. 의사소통은 가족원의 욕구와 감정을 공유하고 의미를 전달, 생성, 반응하기 위하여 언어적·비언어적 방법의 메시지를 사용하는 과정으로, 응집력과 적응력을 촉진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Olson, 1983).

2) 인적체계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응집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는 자녀수와 사회경제적 지위가 응집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고정자, 김갑숙, 1996). 또한 막내자녀연령이 적을수록 남편은 높은 응집성을 나타낸다고 하였다(김수연, 김득성, 1994). 적응력은 부인의 연령이 적을수록(고정자, 김갑숙, 1996), 부인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적응을 잘한다고 하였다(김수연, 1994).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응집력과 적응력이 높은 가족의 비율이 증가하는 반면, 응집력과 적응력이 낮은 가족의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홍성애, 1984; 한유미, 1990). 그러나 고승자(1985)의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일수록 응집력과 적응력이 높다는 보고도 있어 여기에는 또다른 변수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였으며(김순옥, 1989; 서수경·이정덕, 1991; 이정우·이정숙, 1992), 가족의 소득수준과 효율적 의사소통과 정적 관계가 있었으며(김순옥, 1990; 조은경·서병숙, 1994), 자녀수와는 부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정우·이정숙, 1992; 오경희, 1995).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자신과 상대방을 이해하고 가정생활에서의 적합한 역할 개념을 명확히 할 수 있게 한다(임정빈 등, 1994). 부부가 재무관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서로의 의견교환을 하게 되면 관리행동에 있어서 상대방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고 자신에 대한 상대방의 기대를 잘 파악할 수 있어 만족도가 증가된다

고 하였다. 따라서 가족원들간에 의사소통의 빈도가 많을수록 관리행동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Mugenda 등, 1990; 김효정, 1999), 의사소통의 정도는 계획, 조정, 통제, 지도, 평가의 관리과정 중 통제 과정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순옥, 1989).

3) 관리적체계요소와 가계관리행동

관리적 체계는 효율적인 산출결과를 얻기 위한 가계관리행동으로, 계획과 수행으로 구분되며, 계획에는 목표설정, 표준설정, 자원평가, 정보수집이 포함되고, 수행에는 계획의 실행과 행동의 점검 및 조정이 포함된다. 가계관리행동은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목표를 달성하여 가계의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가계의 재정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계관리자는 가족자원관리체계의 관리적 체계 내에서 자원을 배분하고 조정한다.

가계가 직면하는 재정문제는 자원부족의 문제와 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사용방법의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자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계관리자는 제한된 자원으로 가족원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켜 가족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할 뿐만 아니라, 가족원의 요구와 제한된 자원간의 균형상태를 유지하여 앞으로의 가계재정상태의 위기를 감소시키려고 한다. 둘째, 가계관리자는 가계가 처한 상황과 이용 가능한 가정자원을 고려하여 자원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계가 직면하는 예측 가능한 혹은 예측 불가능한 재정문제를 최소화하여 가족원의 갈등을 줄이고 만족도를 향상시키려고 한다.

가계관리의 계획행동은 가족의 가치와 표준에 따라 자원분배의 방법과 양을 결정하며, 행동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계획행동은 통합적, 필수적인 행동으로서 관리행동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하므로 현재의 가계관리행동은 미래의 가계재정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가계관리의 수행행동은 계획단계에서 결정된 내용이 효율적인 산출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천하는 행동과정이다. 따라서 수행과정에서는 가계관리자 뿐만 아니라, 가족원들의 원만하고 활발한 의사소통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요구된다. 가계관리

자는 수행과정을 통해 현재의 가계재정상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가계의 재정관리행동을 조정하거나 가계의 재정목표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가계의 재정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4) 가계관리행동에 영향변인

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계소득이라고 보고한 연구가 있다. 즉 가계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가정관리행동이 효율적이라는 연구결과(이연숙·두경자, 1991; 고보선, 1996)와 가계소득과 효율적인 관리행동간에 부적 관계의 연구결과(Garrison & Winter, 1986; Fitzsimmons, Hafstrom, & 임정빈, 1991)가 있어 가계소득수준에 있어서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은 대부분의 연구결과에서 효율적인 관리행동과 정적 관계를 보였으며(Deacon & Firebaugh, 1988; Titus, Fanslow, & Hira, 1989; 이연숙·두경자, 1991; 임정빈·조미환·이영호, 1995; 계선자·강기정, 1999), 가족원수는 관리행동에 부적관계를 보여서 가족원수가 많은 경우, 관리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 있다(Garrison & Winter, 1986; 이연숙·두경자, 1991). 가계가 재정자원사용을 계획하

고 그 계획을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따라 가계의 만족과 효용이 영향을 받는 것을 볼 때, 가계재무관리행동은 가계재정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박명희, 1997; 홍향숙·이기춘,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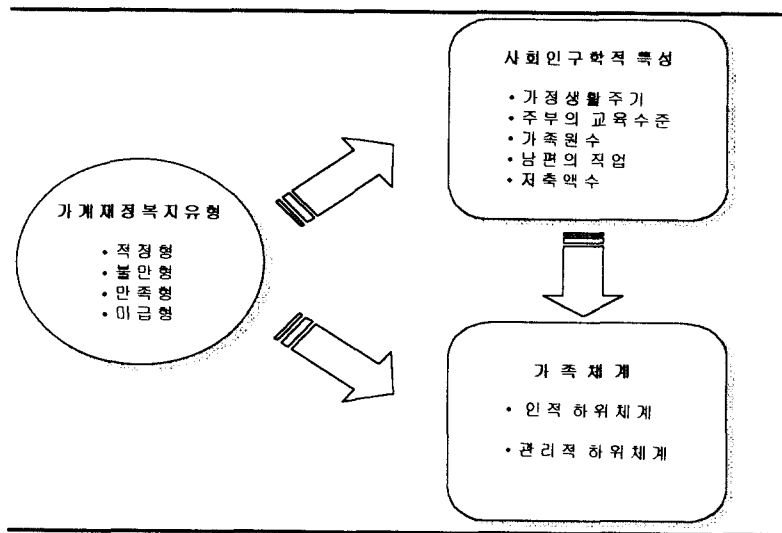
최근 가족체계 내 역동성에 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이연숙b, 1996; 계선자·한정화, 1997; 고보선b, 1999), 응집성, 적응력, 의사소통, 그리고 관리행동의 가족체계내 역동성 요소들간에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가족의 응집성, 적응력, 의사소통은 인적체계 요소와 관리행동과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타나, 가계재정복지는 두 개의 하위체계 간의 역동성에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보인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고찰을 토대로 실증적 연구를 위한 연구모형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그림 1> 연구모형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가계의 복지유형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연구문제 2. 가계재정복지유형에 따라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가계재정복지유형에 따라 인적 하위체계와 관리적 하위체계의 특성은 각각 어떠한가?

2. 조사도구 및 측정

본 연구는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질문지 조사방법을 실시하였으며, 질문지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 응집력, 가족 적응력, 가족 의사소통 등의 인적 하위체계와 가계재무관리 계획 및 수행의 관리적 하위체계, 그리고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와 주관적 가계재정복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1) 가계재정복지 척도

객관적 가계재정복지는 소득과 순자산으로 구성된 결합 척도¹⁾로 측정하였으며, 주관적 가계재정복지 척도는 Rudd(1986), Danes 와 Retting(1993), 그리고 Hira 등(1989)의 척도를 기초로 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하였다. 주관적 가계재정복지 척도는 생활수준과 생활표준간의 차이 인지, 자원적정도 인지,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 그리고 재정상태에 대한 기대감과 향상감 등을 5점 Likert 척도로 총 1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으로 인지한 가계재정복지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주관적 가계재정복지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7이다.

가계재정복지유형은 객관적 가계재정복지 수준과 주관적 가계재정복지 수준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와 주관적 가계재정복지 수준이 모두 평균보다 높은 '적정형', 객관적 가계재정복지 수준은 평균보다 높으나 주관적 가계재정복지 수준이 평균보다 낮은 '불

만형', 객관적 가계재정복지 수준은 평균보다 낮으나 주관적 가계재정복지 수준이 평균보다 높은 '만족형', 그리고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와 주관적 가계재정복지 수준 모두 평균보다 낮은 '미급형'이다.

2) 가족자원관리체계 척도

(1) 인적 하위체계 척도

가족체계의 인적 하위체계를 구성하는 세 요소 중 응집력은 가족구성원들간의 정서적 친밀감과 유대감이며, 적응력은 가족체계가 상황적, 발달적 요구에 대하여 권력구조, 역할관계 및 역할 규칙을 변화시켜 대처하는 능력을 말한다. 의사소통은 구성원들간에 의미를 전달, 생성, 반응하기 위하여 언어적·비언어적 방법의 메시지를 사용하는 과정으로, 응집력, 적응력, 그리고 관리적 하위체계의 기능성을 촉진시키는 요소이다.

이들 척도는 Olson 등(1982)의 FACES II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II) 척도를 기초로 하여 각각 6개 문항을 작성하여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응집력과 적응력이 높으며,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각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777, .829, .899이다.

(2) 가계재무관리행동

가계재무관리행동은 가족체계의 기능성인 관리적 하위체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가족원의 욕구충족과 가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원획득과 분배 및 사용 등에 대하여 계획하고 수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Godwin 과 Carroll(1986), Fitzsimons 등(1993)의 척도를 기초로 하여, 각각 5개 문항을 작성하여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효율적으로 가계관리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계재무관리행동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43이다.

1) Weisbrod 와 Hansen(1968)은 소득의 유량(flow) 개념과 자산의 저장(stock)의 개념을 결합시키기 위하여 순자산을 연가치로 계산하였다. 순자산의 연가치란, 순자산을 모두 연금으로 투자하여 주어진 이자율 r 로 남은 여생(n)동안 연금형식으로 받을 경우 t 해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액수를 말한다.

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한 자녀 이상을 둔 가계의 주부로 하였다. 연구목적에 위하여 조사는 질문지를 사용하였고 표본은 월평균 가계 소득과 자산, 가정생활주기 등을 고려하였으며, 조사 대상 지역은 강남과 강북으로 나누어 서울시 주민이 고루 표집되도록 유의적 표본추출방법을 하였다. 예비조사는 1996년 4월 15일부터 4월 27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예비조사 결과를 근거로 5월 6일부터 6월 8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최종분석자료는 662부이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χ^2 , t 검정, 일원분산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통계처리는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주부의 평균 학력은 13년이며, 대졸이상 43%로 고졸이상의 학력이 88%로, 비교적 교육수준이 높다. 평균 가족원수는 4.12명이다. 남편의 직업은 고른 분포를 보였으나, 관리직이 33.5%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다. 평균 막내자녀의 연령은 13.4세로 나타나, 가정생활주기가 중학교 교육시기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월평균 가계소득은 201-300만원 29%, 301만원이상 32%이며, 평균 소득은 약 304만원이며, 총 자산은 1억1만원-2억원이 전체 응답자 중 23%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으며, 평균 자산은 약 28,346만원이다. 평균 저축액수는 77.23만원이고 저축이 없는 경우가 응답자의 10.4%이다.

2. 가계재정복지유형 분석

가계재정복지를 유형화하기 위하여 객관적 가계재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662)

변인	구분	N(%)	변인	구분	N(%)
가정생활주기 (막내자녀연령중심)	7이하	215(32.5)	월평균 가계소득 (단위 : 만원)	150 이하	118(17.9)
	8~13	106(16.0)		151~200	138(20.9)
	14~19	133(20.1)		201~300	193(29.2)
	20~24	126(19.1)		301 이상	212(32.1)
	25이상 평균	81(12.3)		평균	304.093만원
주부의 교육수준	25이상 평균	13.41세	저축액수 (단위 : 만원)	0	69(10.4)
	중졸이하	83(12.6)		30 이하	109(16.5)
	고졸	296(44.8)		31~60	178(26.9)
	대졸이상 평균	282(42.7)		61~100	168(25.4)
가족원수 (단위 : 명)	평균	13.14년	101 이상	137(20.7)	
	3 이하	171(25.9)	평균	77.23만원	
	4	300(45.4)	남편직업유형	전문직	142(23.4)
	5이상 평균	190(28.7)		관리직	197(32.5)
4.12명	4.12명	사무직		143(23.6)	
			판매서비스직	124(20.5)	

정복지와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여 가계재정복지를 네 집단으로 유형화하였다(표 2).

장 많다. 가족수가 4인 이상인 경우 만족형은 60%인 반면, 불만형은 87%인 것으로 나타나 가족수가 가계

〈표 2〉 가계재정복지유형 분석

변 인	전체평균	집단 1	집단 2	집단 3	집단 4	F 값
		(N=152)	(N=110)	(N=120)	(N=140)	
		M(SD)	M(SD)	M(SD)	M(SD)	
객관적 가계재정복지	4635.87 만원	10402.23 (9440.67)	8069.12 (3593.17)	3170.96 (938.87)	2903.55 (896.21)	65.14***
주관적 가계재정복지	13.83점 ^a	15.71(1.47)	11.56(1.67)	15.70(1.39)	11.55(1.70)	308.32***

주: *** P<.001. a: 점수범위; 5-25점.

집단 1은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와 주관적 가계재정복지 수준이 모두 평균보다 높은 집단으로, '적정형'이라고 명명하였고, 집단 2는 객관적 가계재정복지는 평균보다 높고, 주관적 가계재정복지는 평균보다 낮은 집단으로, '불만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집단 3은 객관적 가계재정복지는 평균보다 낮고, 주관적 가계재정복지는 평균보다 높은 집단으로, '만족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집단 4는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와 주관적 가계재정복지 모두 평균보다 낮은 집단으로, '미급형'이라고 명명하였다.

네 집단의 빈도는 골고루 분포되었는데 '적정형'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미급형', '만족형', 그리고 '불만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3. 가계재정복지유형의 특성

1)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계재정복지유형이 사회인구학적 변인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가계재정복지유형은 모든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주부학력별로 살펴보면, '적정형'은 주부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가 53.3%로 네 집단 중 가장 학력이 높고, 불만형의 경우 고졸이 많다. 미급형의 경우 학력이 가장 낮다. 가족원수별로 보면 만족형은 3.93명으로 제일 적고 불만형의 경우 4.3명으로 가

복지유형의 중요변수임을 알 수 있다.

남편의 직업별로 살펴보면, '적정형'과 '불만형'의 경우 전문·관리직을 합하여 70% 정도이고 만족형의 경우 사무직, 판매서비스직이 많다. '불만형'인 경우는 객관적 복지지수가 다 같이 높은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만족도가 낮아서 '불만형'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다. '만족형'의 경우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고 직업지위가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생활표준을 적절히 조정하여 스스로 만족하는 집단임을 알 수 있다.

가정생활주기별로 살펴보면, 막내자녀가 어린 경우에 '만족형'에 속하고, 자녀나이가 사춘기에 있는 가족의 경우 경제적 부담도 크고 자녀와의 갈등도 있어서 '불만형'으로 구분된다고 본다.

가계소득별로 보면, '적정형'과 '불만형'의 경우 200만원 이상인 가정이 각각 92%, 96%로 오히려 '불만형' 가정의 소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지수가 낮은 것은 주관적 만족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만족형'의 경우 '미급형'과 평균소득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만족지수가 높은 것은 주관적 지수가 높기 때문이다.

종합해 보면, '적정형' 가족은 주부의 학력, 남편의 직업, 월평균 가계소득과 저축액수가 다른 유형에 비해 높고, 약 4명의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막내자녀의 연령이 약 16세이다. '불만형' 가족은 가족원수가 다른 유형에 비해 많고 막내자녀의 연령이

〈표 3〉 가계복지유형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

						(N=%)
변인	구분	집단1(N=152)	집단2(N=110)	집단3(N=120)	집단4(N=140)	χ^2
주부학력	중졸 이하	9(5.9)	11(10.0)	15(12.5)	24(17.1)	12.73*
	고졸	62(40.8)	52(47.3)	55(45.8)	60(42.9)	
	대졸 이상	81(53.3)	47(42.7)	50(41.7)	56(40.0)	
	평균(년)	13.93	13.30	13.15	12.73	
가족원수	3이하	37(24.3)	14(12.7)	48(40.0)	41(29.3)	25.82***
	4	66(43.4)	59(53.6)	47(39.2)	68(48.6)	
	5이상	49(32.2)	37(33.6)	25(20.8)	31(22.1)	
	평균(명)	4.18	4.32	3.93	4.01	
남편직업	전문직	40(27.8)	26(25.2)	26(23.4)	26(21.0)	47.78***
	관리직	59(41.0)	45(43.7)	25(22.5)	21(16.9)	
	사무직	25(17.4)	13(12.6)	39(35.1)	40(32.3)	
	판매서비스직	20(13.9)	19(18.4)	21(18.9)	37(29.8)	
	평균	2.19	2.30	2.63	2.85	
가정생활주기 (막내연령중심)	7이하	33(21.7)	14(12.7)	69(57.5)	59(42.1)	75.74***
	8~13	25(16.4)	17(15.5)	16(13.3)	26(18.6)	
	14~19	33(21.7)	31(28.2)	11(9.2)	23(16.4)	
	20~24	34(22.4)	31(28.2)	14(11.7)	19(13.6)	
	25이상	27(17.8)	17(15.5)	10(8.3)	13(9.3)	
	평균(세)	15.84	17.14	8.66	11.28	
월평균 가계소득	150이하	2(1.3)	6(5.5)	36(30.0)	58(41.4)	263.78***
	151~200	10(6.6)	10(9.1)	41(34.2)	51(36.4)	
	201~300	51(33.6)	44(40.0)	41(34.2)	29(20.7)	
	301이상	89(58.6)	50(45.5)	2(1.7)	2(1.4)	
	평균(만원)	415.84	362.05	203.33	184.54	
저축액	30이하	29(19.2)	28(25.5)	24(20.0)	59(42.1)	82.21***
	31~60	24(15.8)	31(28.2)	46(38.3)	51(36.4)	
	61~100	43(28.3)	32(29.1)	32(26.7)	25(17.9)	
	101이상	56(36.8)	19(17.3)	18(15.0)	5(3.6)	
	평균(만원)	111.64	70.82	66.53	43.93	

주: * P<.05;*** P<.001. 집단 1: 적정형, 집단 2: 불만형, 집단 3: 만족형, 집단 4: 미급형.

약 17세이고, 주부의 학력은 약 13년이며, 남편은 대부분 관리직에 종사하고, 월평균 362만원의 가계소득과 70.82만원의 저축액 수준을 보였다. '만족형' 가족은 가족원수가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적고 막내 자녀의 연령이 약 9세로 가장 낮으며, 주부의 학력은 약 13년이며, 남편은 전문·관리·사무직에 종사하고, 월평균 203만원의 가계소득과 66.53만원의 저축액 수준을 보였다. '미급형' 가족은 주부의 학력, 남편의 직업, 가계소득이 다른 유형에 비해 낮고, 가

족원수는 4명이며, 막내자녀의 연령은 약 11세이다. '불만형' 과 '만족형'을 비교해 보면 주부학력은 두 집단이 비슷하고, 남편의 직업과 지위와 가계소득은 높은 점은 공통적이나 자녀나이가 많은 경우 '불만형'으로 구분되고 '만족형'인 경우 자녀나이가 어린데에 차이가 있다. 이는 '불만형'인 경우 가정생활주기로 보아 확대기에 있어 생활이 복잡하고 자녀교육비 및 노부모 부양비 부담이 있고 청소년기 자녀와의 갈등과 주부 자신의 중년기 갈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인적 체계의 특성

가계재정복지유형은 어떠한 인적 체계를 보이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한 결과 분석결과, 가계재정복지유형은 인적체계의 모든 요소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표 4>.

3) 가계재무관리행동

가계재정복지유형은 가계재무관리행동의 모든 요소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표 5>.

‘만족형’ 가족이 가계재무관리행동을 위한 계획과 수행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표 4> 가계재정복지유형에 따른 인적체계의 특성

집 단	변 인	응집력	적용력	의사소통	인적체계
		M(SD)	M(SD)	M(SD)	M(SD)
적정형 (N=152)		3.84(.72)	3.72(.71)	3.63(.76)	3.73(.67)
불만형 (N=110)		3.65(.71)	3.40(.71)	3.35(.72)	3.47(.65)
만족형 (N=120)		3.95(.67)	3.81(.68)	3.67(.73)	3.82(.62)
미급형 (N=140)		3.56(.75)	3.44(.73)	3.28(.76)	3.41(.67)
F 값		7.74***	10.35***	9.22***	11.72***

주: *** P<.001.

‘만족형’ 가족은 인적 체계의 모든 요소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다음은 ‘적정형’이다. ‘만족형’의 경우 응집력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고, ‘불만형’의 경우 의사소통 점수가 낮고, ‘미급형’은 상대적으로 모든 요소에서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만족형’과 ‘미급형’을 비교할 때 ‘만족형’의 경우는 객관적 복지수준이 낮지만 주관적 만족수준이 높은 반면 ‘미급형’ 가족은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와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의 수준이 모두 낮은 집단인데 인적체계의 하위 변인들의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와의 상관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불만형’ 가족의 가계재무관리행동의 점수는 가장 낮았다. 이는 가계관리에 있어 계획을 철저히 하고 실제 속에서 계획에 따라 수행하는 가정의 만족도가 크다는 것을 잘 말해주는 결과이다. 특히 계획, 수행에 있어서 ‘불만형’ 점수는 ‘미급형’의 경우보다도 낮은 것은 관리상의 문제로 인해 결과적으로 만족도가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가계재정복지유형의 인적·관리적 하위체계의 특성을 종합해 보면,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의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의 수준이 높은 집단이 가족구성원들간의 응집력과 적용력 수준이 높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며, 효율적으로 가계재무

<표 5> 가계재정복지유형에 따른 가계재무관리행동

집 단	변 인	계획	수행	가계재무관리행동
		M(SD)	M(SD)	M(SD)
적정형 (N=152)		3.82(.69)	3.68(.69)	3.76(.60)
불만형 (N=110)		3.57(.69)	3.48(.64)	3.53(.58)
만족형 (N=120)		4.00(.69)	3.71(.64)	3.86(.59)
미급형 (N=140)		3.71(.71)	3.60(.69)	3.65(.60)
F 값		7.63***	2.89*	6.50***

주: * P<.05; *** P<.001

관리행동을 계획하여 수행함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계재정복지를 말할 때 객관적 지수나 주관적 평가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이 두 가지 차원을 동시에 적용하여 복지수준을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리고 객관적 변인이나 주관적 변인들 중 어떤 변인들이 가계재정복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고 가족체계의 인적체계와 관리적 체계의 역동성이 복지수준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나를 분석하여 개별 가정이 자신의 복지수준을 높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려고 시도되었다.

가계재정복지유형을 객관적 복지측면과 주관적 복지측면의 두 가지 차원에서 구분하였다. 즉 객관적 지수와 주관적 지수가 모두 평균보다 높은 집단은 '적정형', 객관적 지수는 높으나 주관적 지수가 낮은 집단은 '불만형', 객관적 지수는 낮으나 주관적 지수가 높은 집단은 '만족형', 두 가지 지수가 모두 낮은 집단은 '미급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들 분포는 고르게 나타났다.

각 유형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보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적정형'은 소득, 교육수준, 저축 등 객관적 지수가 높은 동시에 가족의 응집력, 적응력, 의사소통이 다른 집단에 비해 잘되고 가계관리를 함에 있어서 계획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는 생활여건도 여유가 있지만 의도적인 관리를 함으로서 전반적인 복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본다.

'불만형'은 소득, 교육수준은 높으나 인적하위체계의 점수가 다른 세 집단에 비해 가장 낮고, 가계관리에 있어 계획과 수행이 과학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생활여건이 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가족이 화합하지 못하고 관리를 합리적으로 하지 못하면 복지수준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만족형'의 경우는 객관적 지수는 '적정형'과 '불만형'에 비해 낮지만 가족이 화합하고 가계관리를 계

획성 있게 합리적으로 함으로 전체적인 복지수준이 높게 나타나 있다.

'미급형'은 객관적 복지수준이 낮은 열악한 생활 조건에서도 가족의 적응력은 불만형보다 높고 가계관리는 계획, 수행면에서 불만형보다 높은 것을 보면 긍정적인 생활태도를 엿볼 수 있고 이 집단은 가정생활주기로 보아 확대기 초기에 해당되는 시기에 있으므로 미래 전망이 밝다고 본다.

가계재정복지유형은 가정생활주기, 즉 가구주 연령과 막내자녀 나이에 따라 다르게 구분됨을 볼 때 가정관리자는 자신의 가정이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고려하여 경영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객관적 지수보다는 가족의 화합과 과학적 관리 방법으로 전반적 복지수준이 높아짐을 볼 때 가계관리자를 위한 교육과 상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인다.

【참 고 문 헌】

- 1) 고보선(1996).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관리체계와 가계재정복지,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 2) _____(1999). 가족체계의 역동성과 가계재정복지: 가족유형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3), 63-84.
- 3) _____(1999). The Intrasystem Dynamics and Subjective Family Financial Well-being in Korean Households, *J. of ARAHE*, 6(4), 218-225.
- 4) 고정자·김갑숙(1996). 가족의 응집성 및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맞벌이 부부의 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1), 65-78.
- 5) 계선자·한정화(1997). 도시주부의 가족응집력과 적응력에 따른 경제복지감,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 59-77.
- 6) 김두섭(1993). 사회과학을 위한 회귀분석, 서울: 법문사
- 7) 김명자(1992). 중년기 부부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가족응집력 및 복지감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논문집, 33, 31-55.
- 8) 김수연·김득성(1993). 부부의 응집 및 적응과의 사소통과의 관계: 순환모델의 곡선성 대선형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30-39.

- 9) _____(1994). 맞벌이 부부의 응집 및 적응이 역할갈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2(3), 121-134.
- 10) 김순옥(1990). 고등학생자녀와 부모간의 응집성 및 이에 대한 가족구조변인의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1), 143-156.
- 11) 안선영(1994). 가족의 응집력 및 적응력과 권위 유형, 성역할태도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2(2), 79-91.
- 12) 이기영 · 조영희(1992). 관리기능에 대한 체계론적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30(4), 279-292.
- 13) 이연숙(1996). 가족체계내 역동성 요소에 근거한 가족유형에 따른 주부의 가정관리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4(4), 295-308.
- 14) 이정우 · 이미선(1995). 취업주부가 지각한 가족 응집력 · 적응력 및 가사노동수행방안, *대한가정학회지* 33(3), 71-84.
- 15) _____ · 이정숙(1992). 가족내 의사소통과 가정관리행동: 부산시 주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0(3), 241-256.
- 16) 임정빈 · 조미환 · 이영호(1995). 농촌가정의 의사소통, 재무관리행동, 가정생활만족: Deacon과 Firebaugh의 체계적 접근법 적용,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156-169.
- 17) 장진경(1995). 가족 적응력과 가족기능과의 관계: Olson의 순환모델의 곡선성과 Beavers의 체계모델의 선형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4), 1-13.
- 18) 최규련(1995). 가족체계의 기능성,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과 부부의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3(6), 99-113.
- 19) Bailey, A.W.(1987). Social and Economic Factors Affecting the Financial Well-being of Families, *J. of Home Economics*, 80, 14-18.
- 20) Deacon, R.E. & Firebaugh, F.M.(1989). The Factors Affecting a Family's Plan to Change its Financial Situation, *Lifestyles: Family and Economic Issues*, 10, 205-215.
- 21) Fitzsimmons, V.S., J.L.Hafstrom, & 임정빈(1991). 한국과 미국의 농촌가계의 재정관리 행동: Deacon과 Firebaugh의 모델 적용,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81-94.
- 22) _____, Hira. T.K., Bauer, J.W., & Hafstrom, J. L.(1993). Financial Management: Development of Scales, *J.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4(3), 257-273.
- 23) Godwin, D.D. & D.D., Carroll(1986). Financial Management Attitudes and Behavior of Husbands and Wives, *J.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0, 77-96.
- 24) Hafstrom, J. & S.J. Bahr(1978). Economic well-being and marital stability implications for income maintenance program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283-290.
- 25) Hira, T.K.(1987). Satisfaction with Money Management: Practices among Dual-earner Households, *J. of Home Economics*, 80, 19-22.
- 26) Mugenda, O.M., Hira. T.K., & Fanslow, A.M. (1990). Assessing the Casual Relationship among Communication, Money Management Practices, Satisfaction with Financial Status, and Satisfaction of Quality of Life, *Lifestyles: Family and Economic Issues*, 11(4), 343-360.
- 27) Olson, D.H. McCubbin, H.I., Barnes, H.L., Larsen, A.S., Muxen, M.J., & Wilson, M.A.(1983). *Families: What makes them work*, sage.
- 28) Schramm, R.W. & Hira, T.K.(1993). The effects of perceived locus of control and perceived income adequacy on satisfaction with financial status of Rural Households, *J.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4(4), 343-363.
- 29) Titus, P.M. Fanslow, A.M., & Hira, T.K.(1989). Net worth and Financial Satisfaction as a Function of Household Money Manager's Competenc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4), 309-317.